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시장 동정자료



■ 매수 : 3매 ■ 사진 있음

웹하드(press.webhard.co.kr) ID/PW:press1

담당 : 서울특별시 대변인 언론담당관

언론담당관	2133-6205	신문팀장	2133-6207	담당자	2133-6253
이준형		천세은		조항윤	

오세훈 시장, 지하차도 안전 점검...“침수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안내하는 LED표지판 선제 보강”

- 18일(화), 침수 우려 지하차도 현장방문 -

-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화) 낮 12시,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내 침수 우려 지하차도를 찾아,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진입 차단을 안내하는 LED표지판 등의 임시시설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오 시장은 구룡터널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구룡터널 관리소장으로 부터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침수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차단기, 진입 금지를 알리는 전광판 등의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 이어, 염곡동서지하차도를 찾아 직접 도보로 이동하며 시설물을 점검하고, 호우·홍수 경보 발령 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자동차단 시스템의 작동과정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위험 및 안전 등급별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고, 시설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의지도 전했다.

- 현재 서울시 내 지하차도 관리사무소에서는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고 있으며, CCTV 확인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원격으로 자동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침수위험도 기준에 따라 오목 형태와 같이 바닥이 꺼지는 침수 취약 구역을 우선으로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오 시장은 "이번 궁평지하차도 침수 사건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날 수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춘 곳이 서울시 내에는 없는지 일단 점검하고 있다"며, "상세 점검 결과에 따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침수 사고에 대비해서 진입 차단 설비를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진입을 금지하는 문자를 표출할 수 있는 LED표지판을 임시로 설치해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완벽한 형태의 진입 차단 설비를 설치하기에 앞서 임시로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들을 급히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침수 우려 지하차도 현장방문」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2:00~12:30(30')	○ 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현황, 시설물 점검	구룡터널 관리사무소, 염곡동서지하차도

※ 관련부서 :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기전팀장 허 응 ☎2133-1671

□ 현장 사진



염곡동서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염곡동서지하차도 현장을 찾아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